

오희엽 T 기출 한자성어(2004학년도-2014학년도 모의수능) 다 모여.

| 정답 선택지 한자성어 | 정답 외(外) 선택지 한자성어 |
|--|--|
| [2004학년도 6월 모의수능] ◇ 전인미답(前人未踏) :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 보지 못했다는 뜻. | 고진감래(苦盡甘來) : ㄹ [1999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 |
| | 유일무이(唯一無二) :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. |
| | 진퇴유곡(進退維谷) : ㄹ [1998·2009학년도 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 |
| [2004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절치부심(切齒腐心) :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는 뜻. | 절차탁마(切磋琢磨) :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.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말. |
| | 호구지책(糊口之策) : 가난한 살림에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뜻. |
| | 후안무치(厚顏無恥) :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. |
| [2005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무위도식(無爲徒食) :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는 뜻. | 무위도식(無爲徒食) :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는 뜻. |
| | 풍찬노숙(風餐露宿) : 바람을 먹고 이슬에 잠잔다는 뜻.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할 때 사용하는 말. |
| | 맥수지탄(麥秀之嘆) : 한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. |
| [2005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비분강개(悲憤慷慨) : 잘못된 세태로 인해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낀다는 뜻. | 망양지탄(亡羊之嘆) : ㄹ [2010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 |
| | 후생가외(後生可畏) :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. 곧 젊은 후배들은 선인(先人-先生)의 가르침을 배워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는 말. |
| | 후회막급(後悔莫及) :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다는 뜻. |
| [2006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요지부동(搖之不動) : 마구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뜻. | 오불관연(吾不關焉) :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. |
| | 삼고초려(三顧草廬) :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. |
| | 노심초사(勞心焦思) : 근심 걱정으로 애를 쓰고 속을 태운다는 뜻. |
| [2006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유구무언(有口無言) :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.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할 때 사용하는 말. | 유구무언(有口無言) :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.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할 때 사용하는 말. |
| | 갑론을박(甲論乙駁) : ㄹ [1998·2000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 |
| | 설왕설래(說往說來) : 서로 말을 주고 받는다는 뜻. 서로 욕신각신할 때 사용하는 말. |
| [2007학년도 6월 모의수능] ◇ 이구동성(異口同聲) : 입을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.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. | 중구난방(衆口難防) :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떠든다는 뜻. |
| | 이심전심(以心傳心) :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말. 같은 말로 '심심상인(心心相印)', '염화미소(拈華微笑)', '염화시중(拈華示衆)' 등이 있음. |
| | 고립무원(孤立無援) : ㄹ [1996학년도 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 |
| [2007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기호지세(騎虎之勢) :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.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| 혈혈단신(孑孓單身) :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이라는 뜻. |
| | 사고무친(四顧無親) :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. |
| | 진퇴유곡(進退維谷) : ㄹ [1998·2009학년도 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 |

| | |
|--|--|
| <p>[2008학년도 6월 모의수능] ◇ 일벌백계(一罰百戒) :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.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할 때 사용하는 말.</p> | <p>유구무언(有口無言) : [2006학년도 9월 모의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청천벽력(靑天霹靂) :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.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</p> <p>토사구팽(兔死狗烹) :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.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아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풍자할 때 사용하는 말.</p> <p>비분강개(悲憤慷慨) : [2005학년도 9월 모의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|
| <p>[2008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각골통한(刻骨痛恨) : [2003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| <p>침소봉대(針小棒大) : [1997학년도 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목불인견(目不忍見) :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다는 뜻.</p> <p>수수방관(袖手傍觀) : 도와줄 생각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멀뚱히 바라본다는 뜻.</p> <p>기사회생(起死回生) : 거의 죽다가 도로 살아난다는 뜻.</p> |
| <p>[2009학년도 6월 모의수능] ◇ 노심초사(勞心焦思) : [2006학년도 9월 모의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| <p>선견지명(先見之明) : 미래에 닥쳐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라는 뜻.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윤곡 선생이 주장한 ‘십만양병설’이 여기에 해당함.</p> <p>식자우환(識字憂患) : 아는 것이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된다는 뜻.</p> <p>시시비비(是是非非) :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뜻.</p> <p>적반하장(賊反荷杖) :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더 큰소리 친다는 뜻.</p> |
| <p>[2009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동상이몽(同床異夢) : [2005학년도 수능 정답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| <p>동가홍상(同價紅裳) :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.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.</p> <p>동문서답(東問西答) : [2000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동병상련(同病相憐) : [1994학년도 1차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동분서주(東奔西走) :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.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닐 때 사용하는 말.</p> |
| <p>[2010학년도 6월 모의수능] ◇ 천려일실(千慮一失) : 천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 실수라는 뜻.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말.</p> | <p>허장성세(虛張聲勢) : [2002학년도 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수주대토(守株待兔) :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풍자하는 말.</p> <p>안하무인(眼下無人) :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.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말.</p> <p>자가당착(自家撞着) :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. 같은 말로 ‘모순(矛盾)’이 있음.</p> |
| <p>[2010학년도 9월 모의수능] ◇ 사면초가(四面楚歌) :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,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.</p> | <p>기사회생(起死回生) : [2008학년도 9월 모의수능 정답 외 선택지] 참고하기.</p> <p>삼십육계(三十六計) :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.</p> <p>혼비백산(魂飛魄散) :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. 몹시 놀라 어쩔 줄을 모를 때 사용하는 말.</p> <p>이란투석(以卵投石) :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.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말.</p> |

2011학년 6월

환골탈태(換骨奪胎):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'는 뜻으로, '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거나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'을 이른다.

수구초심(首丘初心):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,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'이다.

오월동주(吳越同舟): '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.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 이해에 대하여 협력함'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.

적반하장(賊反荷杖): '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,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'에 쓰는 말이다.

온고지신(溫故知新): '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'을 이른다.

2011학년도 9월

고진감래(苦盡甘來) : '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

괄목상대(刮目相對):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,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.

권불십년(權不十年) :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,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임.

동상이몽(同床異夢):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,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룸.

오리무중(五里霧中): 오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,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룸.

2012학년도 6월

① 각골통한(刻骨痛恨): '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. 또는 그런 일.

② 물아일체(物我一體): '외물(外物)과 자아, 객관과 주관,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.'을 뜻한다

- ③ 이심전심(以心傳心) :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.'을 뜻한다.
- ④ 진퇴양난(進退兩難): '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.'를 뜻한다.
- ⑤ 천우신조(天佑神助): '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. 또는 그런 일.'

2012학년도 9월

백척간두(百尺竿頭):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

좌고우면(左顧右眄):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,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'이다.

막역지우(莫逆之友): '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,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'이다.

절치부심(切齒腐心): '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'을 뜻한다.

동병상련(同病相憐): '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'이다

2013학년도 6월

- ① 울며 겨자먹기
- ② 옆구리 찢러 절받기
- ③ 울려는 아이 뺨치기
- ④ 미련한 사람 곰잡기
- ⑤ 뱀이 용되어 큰소리하기

2013학년도 9월

오매불망(寤寐不忘): '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'라는 뜻

동병상련(同病相憐) : 같은 병자(病者)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, 어려운 처지(處地)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(同情)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

이심전심(以心傳心) :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

조변석개(朝變夕改): 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

풍수지탄(風樹之嘆): 부모(父母)에게 효도(孝道)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

2014학년도 6월 a형

- ① 꿩 먹고 알 먹는다.: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
-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. :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 :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
-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.: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,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
-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.

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 못 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하는 것으로,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.

2014학년도 6월 b형

- ① 혼비백산(魂飛魄散): 몹시 놀라 넋을 잃음
- ② 경거망동(輕舉妄動):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
- ③ 동분서주(東奔西走):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
- ④ 분기탱천(憤氣撐天):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
- ⑤ 적반하장(賊反荷杖):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,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.

2014학년도 9월 a형

생사기로(生死岐路):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'을 의미

고진감래(苦盡甘來):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,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

내우외환(內憂外患):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

맥수지탄(麥秀之嘆):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

사생결단(死生決斷):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태도

2014학년도 9월 b형

함구무언(緘口無言):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

중언부언(重言復言):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

중구난방(衆口難防):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, 막기 어려울 정도로
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

이실직고(以實直告): 사실 그대로 고함

어불성설(語不成說):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.